

‘문학의 길 역사의 광장’ 발간

임현영 “세계 모든 진보 정권 다 위기… 부패·무능·문과주의 극복해야”

문학평론가이자 ‘친일인명사전’을 발간한 민족문제연구소 소장 임현영(80)이 자신의 인생과 한국 근대사를 통찰하는 책을 출간했다.

임현영 소장은 13일 서울 중구 복합문화공간 순화동전에서 ‘문학의 길 역사의 광장(한길사) 출간 기자간담회’를 갖고 현 세대에 대한 허심탄회한 이야기를 나눴다.

“문학의 길 역사의 광장”은 임현영과 유성호(57) 문학평론가가 치열한 민족의식의 언어로 풀이한 대화록이다. 임현영의 유년 시절부터 두 번의 수감생활을 거쳐 민족문제연구소장을 역임하고 있는 현재의 생애까지를 집약한 자전적 기록이다.

임 소장은 2009년 ‘한일인명사전’ 출간에 앞장서며 근현대사의 반성적 자료를 구축하는데 크게 기여했다. 또한 문인간첩단 사건과 남민전 사건의 주인공이기도 하다.

임 소장은 “등단한 지 55년이 됐는데 내가 정말 쓰고 싶은 게 뭐였을까 라는 생각으로, 말년에 다 내려놓고 쓰자는 심정으로 썼다”며 “2005년 리영희 선생과의 대화록을 책으로 냈었는데 그 이후 한 세대, 16년이 지났다. 그동안 우리 사회가 많이 변했는데 그 역할을 누가 해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썼다”고 말했다.

역사, 정치사회사, 민주화와 통일운동사, 문학작품을 결합해 통섭의 인문학적 접근을 시도했다.

임 소장은 “그간 통섭 인문학 속엔 사회, 정치가 없었는데 그걸 다 넣어야겠다고 생각했다. 내 생애를 간략하게 보여 그간 일어난 중요한 이슈들을 넣었다”며 “공공적으로 올바른 정치를 하도록 국민의 힘이 커지는 그런 방법을 찾고 싶었다”고 설명했다.

공통 저자이자 한양대 인문대학장을 맡고 있는 유성호 국문과 교수는 “임현영 생애가 씨줄로 뻗어내려가게 채워진 자전이다. 거기에 멈추지 않고 날줄로 수많은 사건, 인물들이 노출된다”며 “식민, 분단, 북핵 사회로 이어지는 한국 근대사에 대한 풍요로운 개성적 해석”이라고 밝혔다.

유 교수는 “임현영은 우리 시대를 총체적, 통시적으로 조감할 수 있는 한국의 땅지 않은 지식인”이라며 “1980년대 성세했던 진보담론을



임현영 민족문제연구소장(왼쪽)과 유성호 한양대 인문대학장은 13일 서울 중구 복합문화공간 순화동전에서 ‘문학의 길 역사의 광장’ 출간 기자간담회를 갖고 현 세대에 대한 허심탄회한 이야기를 나눴다. <사진=한길사 제공>

팔순의 임현영이 재구성해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임 소장은 책을 통해 “아무리 이념의 시대가 갔다고 우겨도 인류는 영원히 진보한다. 이견 진리”라며 “진보야말로 인류의 영원한 미래이며 희망이고 사람다운 삶을 보장한다”고 주장했다.

민주화와 평화 정착을 위한 국민 의식의 선진국화를 목표로 잡았다. 아울러 경제적 선진과 동시에 시민의식의 선진화를 강조했다.

임 소장은 “우리는 빈부격차만 큰 것이 아니라 역사적의식의 격차도 크다. 그게 더 무서운 일”이라며 “모든 민주주의가 진보해야 한다. 보수도 합리화되면 진보가 되고, 진보도 부패하거나 무능하거나 분열하면 보수가 된다”고 했다.

친일 청산의 중요성도 거듭 강조했다. 그는 “한반도뿐 아니라 동아시아의 평화를 위해 친일 청산을 해야 하는 것”이라며 “제대로 청산되지 않으면 우리뿐 아니라 일본도 불안해진다. 그런데 어떤 민주 정권도 이걸 못 살리고 있다. 한국 정치의 한계”라고 지적했다.

“진보 정권”을 표방한 문재인 정권에 대한 평가를 묻자 “평가는 조심스럽다”면서도 “세계 모든 진보 정권은 다 위기고 실패했고 좌절했다. 진보는 부패, 무능, 문과주의 세 가지를 극복해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다”고 쓴소리를 했다.

임 소장은 “많은 시민 운동가들이 1987년 6월 이후 현실 정치에 뛰어들었다. 과거에는 시민 운동가들에 대해 다들 존경했지만 이제 그런 존경이 사라졌다”며 “이명박근혜 정부 시절 정권 차원에서 민주인사들의 인식을 낮게 만드는 시도도 있었지만 우리는 아무것도 못했다”고 토로했다.

그는 “민주화 정권이 들어섰지만 변한 것이 없다. 정치에 들어서면 깨끗하게 잘하는 분들도 있지만 이상한 사건에 얽히고 부정부패하는 사람들도 있다”며 “특히 윤리적 측면에서 볼 때 시민운동가 출신들은 욕에 티만 있어도 난리가 나지만 일반 정치인들은 티가 10개가 있어도 아무렇지 않다”고 자조했다.

그러면서 “지금 야당의 경우 100개의 티가 있어도 아무렇지 않은 것 같다”며 “민주화 운동 세대에 대해 편견으로 보는 측면도 있다”고 부연했다.

이 책을 읽은 청년들이 많이 읽으면 하는 바람이다. 유 교수는 “불과 20년 전만 해도 앞세대와 뒷세대가 경험 차이는 커도 지식은 비슷했다. 격차가 적었다는 것”이라며 “지금의 필수 교양에서 역사가 일탈하기 시작한 때인 것 같다”고 했다.

그는 “지금 20대의 정치 의식을 보면 근대사 초유의 다른 형태가 나타나고 있다”며 “이 책의 형식이 수술이다. 말하는 방식인데, 젊은 세대가 이 20세기 전체를 관통하는 이야기를 알았으면 좋겠다. 널리 읽히길 바란다”고 전했다.

/뉴스시스



전북 산림박물관 가을 특별기획전

2022년 1월 9일까지 현대작가 4인 작품 17점 소개

산림문화를 선도하는 전북 산림박물관에서 가을 특별기획전 ‘사람, 내려올 때 보이는 꽃’ 展이 열리고 있다.

사람을 주제로 ‘더불어 사는 삶’에 대한 의미가 있는 조형 언어를 가진 현대작가 4인(김승주·김원·문민·장우석)의 작품 17점이 소개되며, 전시는 오는 22년 1월 9일까지 약 3개월간 진행된다.

작가들은 인간 세상의 불편한 진실을 “사람, 내려올 때 보이는 꽃”이라고 말하며, 이를 산림과 인간을 접목시킨 예술작품으로 구현해 도민들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이번 전시를 통해 사람은 더불어 살아야 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개념인즉, 함께하는 삶, 연대하는 삶의 진정한 의미를 돌아보게 한다.

‘사람, 내려올 때 보이는 꽃’ 展 작가 4인의 작품을 간략히 설명하자면, 김승주는 씁쓸한 삶에 즐거운 원동력을 담은 기억의 상자를 유쾌한 상상력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 열린 조각의 장이 우리가 있고 사는 꿈과 이상향에 대해 기억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해 주고 있다.

김원은 ‘자유意志’(free will)를 환기하는 예술적 의지를 표현한다. 어떤 의사결정과 행동을 스스로 할 수 있으며 외부의 강요

에 상관 없이 선택에 대한 가치판단을 내릴 수 있는가를 예술로 되묻는다. 더러는 우울하고 불안한 형상들이 서로 충돌하면서 불편한 진실의 민낯이 드러난다.

문민은 자신을 비롯한 타자들의 에피소드를 대상으로 한다. 인간을 단순화하여 사각형이라는 틀 속에 있는 현대인의 모습을 담고 있으며, 이는 사각 틀 속에서 살아가는 현대인의 모습을 수집·기록하는 작업을 말한다.

장우석은 개인적인 관심, 주변의 관계를 넘어 역사와 사회의 부조리에 울분을 참지 못하고 있다. 그는 진실한 절규의 순간들을 수집하고 재구성해서 부조리를 미장센(Mis-scene) 한 것이다. 그 간절한 외침이 공분하지 못하게 딱딱해진 우리의 양심을 자극한다.

한편,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박물관 입장 전 발열 검사 실시, 마스크 착용, 사회적 거리두기 등 철저한 방역지침을 준수하여 진행하고 있다.

희망극 산림환경연구소장은 “작은 자들의 외침에 주목하면서, ‘사람이 소중하다’는 불변의 가치를 도민과 함께 나누고자 한다”고 전했다.

/유호성기자

순창군, 문화예술분야 전국대회 수상자 장려금 지급

장관상 이상 수상 개인·단체 대상

순창군이 올해 개최한 문화예술분야 전국대회에서 장관상 이상 수상한 개인이나 단체에게 장려금을 지급한다.

군은 대외적으로 순창의 문화예술의 위상을 널리 알린 자의 자부심을 고취하고 문화예술 활동 장려와 발전을 위해 실질적인 격려 차원에서 장려금을 지원하고 있다.

군은 지난해 4월부터 ‘순창군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조례’에 따라 장려금을 지급하고 있다.

며, 지원대상은 대회 참가일 1년 전부터 신청일까지 순창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문화예술분야 전국대회에서 장관상 이상 수상한 개인이나 단체다.

신청기한은 수상일로부터 6개월 이내이며 수상분야는 문학, 미술(응용미술 포함),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 국악, 사진, 건축, 어문, 출판 및 민화 등 모든 문화예술 분야를 포함한다.

지원금액은 장관상 개인 10만원, 단체 20만원, 국무총리상 개인 20만원, 단체 30만원, 대

통령상 개인 30만원, 단체 50만원이다.

노홍균 문화관광과장은 “관내 문화예술인들의 대내외 활발한 활동을 위해 다방면으로 지원하겠다”며 “순창군이 문화예술 지역으로 한층 더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장려금 신청은 순창군청 홈페이지 공고문을 통해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작성해 수상일로부터 6개월 이내 문화관광과로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문화관광과(063-650-1624)로 문의하면 된다.

/순창=이양원기자

전북예술인복지증진센터 최초전시지원 프로젝트노상희 첫 개인전

(재)전북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이기진)은 14일~28일까지 전북예술회관 지하 1층 특별전시실에서 노상희 작가의 첫 개인전인 ‘Paradise 展’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전북예술인복지증진센터는 도내 시각 분야 예술가의 예술계 진입을 위한 지원과 예술 활동의 기회 제공을 위해 ‘최초전시지원 프로젝트’를 운영 중이다.

노상희 작가는 이번 전시를 통해 “자연에서 오는 순수하고 아름다운 생명력이 넘치는 색을 표현하고자 했다”며, “코로나19로 지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일상의 아름다움을 느껴 보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전시에 대한 문의는 전라북도 예술인복지증진센터(230-7418)로 하면 된다.

/장은성기자

전북문화관광재단 관광 부문 ESG 경영 결의식 개최

(재)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이기진)은 13일 관광 부문 ESG 경영 실천을 위한 결의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의식은 “관경을 통한 사회 전체의 지속가능한 성장 선도”라는 비전 아래 3대 전략과 9개 추진과제 등 관광 부문 ESG 경영 추진 전략 발표 및 실천을 다짐했다.

재단 관계자는 “지역의 관광분야의 공공영무를 수행하는 조직으로서의 사회적 책임과 가치 실현의 기여라는 임무를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 다짐하는 계기로 ESG 경영 실천 결의”라며 이번 결의식의 의미를 밝혔다.

결의식에 이어 재단은 내장산국립공원사무소(소장 주재우)와 탄소중립정책 실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의 주요 내용으로는 ESG 친환경 사업 발굴을 위한 체계를 구축하고, 지역사회 기여 프로그램의 발굴 및 운영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세부 사업으로는 ▲탄소중립 친환경 여행 공동 브랜드화, ▲문화예술을 연계한 친환경 여행 프로그램 발굴 및 운영, ▲관광 분야 전문 인력 양성 및 공동 워크숍 개최, ▲국립공원 내 생태문화자원 보전방안 마련을 위한 협의 등이다.

김현 관광진흥본부장은 “관광과 문화 공공기관으로서의 재단의 ESG 경영 실천은 지속가능한 내일을 위한 필수적인 실천이다”고 말했다.



(재)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은 13일 관광 부문 ESG 경영 실천을 위한 결의식을 개최했다.

아울러 “그 첫 번째 노력으로 내장산국립공원사무소와의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이 지역의 미래를 위한 ESG 경영의 선도적 역할 수행으

로 지역자원 보존과 이를 활용한 지속가능한 관광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장은성기자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기업

은혜상사(주)

사회적기업

여성기업

작업복
단체복

안전화
안전용품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명찰, 로고
각종 인쇄

사무용 가구
파티션, 앵글,
선반 제작

대표전화 **063)227-4610** **NAVER** [은혜상사\(주\)](#)

팩스번호 **063)227-4619** 전주시 덕진구 기린대로 903, 1층